

가슴으로 전하는 사랑

<편집실>

오 늘부터 며칠간 비가 내린다더니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 빈혈제를 타려고 아이와 함께 보건소에 갔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첫아이 수인과 곧 태어날 둘째아이를 위해 글을 써보기로 했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 훗날 아이들이 이 글을 읽으며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첫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임신중독증으로 크게 고생을 했다. 결국 아기와 내 생사를 걸고 큰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때 내 나이 스물이었다. 내 나이가 너무 어린 탓이었을까? 난 출산을 두려워했고 내 아이의 존재가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도 나는 아기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했었다.

하지만 1.9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그런 내게 모성애를 자극시켰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그렇듯 나 역시 분유를 고집했었지만 너무 허약한 아기를 위해 모유를 먹이기로 결심했다.

난 아기를 낳은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걸을 수 있었다. 심한 임신중독증으로 몸이 몹시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안에 있고 난 걸을 수 없었기에 난 아기를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다.

일주일만에 처음 본 아기는 인큐베이터속에서 살기 위해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너무 작고 가냘픈 발에 주사 바늘까지 꽂고 엄마가 온 줄도 모른 채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난 아기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줄 수 없어 미안

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마음이 그렇게 아파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 난 세상에 태어난 후 가장 큰 아픔을 맛보았다.

내겐 동갑내기 신랑이 보호자로 병원에서 간호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으로 매일 젖마사지를 해서 우유병에 젖을 짜내어 담았다.

산부인과 병실에 그것도 스무 살의 남자보호자가 다른 여자들 앞에서 아내의 젖을 짜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남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처음에는 참피하다며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이 아기가 모유를 잘 먹는다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말을 듣고 불평없이 젖짜내는 일을 해주었다.

하지만 내몸 추스르는 일도 힘들었기에 모유를 짜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무리라며 모유를 그만 끊는게 어떠냐며 권했지만 모유가 그것도 초유는 아기에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어쩌면 아기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기에 집착했는지도 모른다. 아기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난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보름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아기는 계속 병원에 남아 있어야 했다.

아기를 병원에 남겨두고 혼자서 퇴원하는 내 마음은 또한번 큰 고통에 아파야 했다. 병원은 익산, 집은 전주였기에 더 이상 모유를 짜서 아기에게 주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나는 아기가 집에 오면 한번이라도 품에 안고 젖을 먹고 싶어 매일 매일 혼자서 젖을 짜냈다.

젖을 짜내도 아기가 빨지 않으면 곧 젖이 마를 거라는 말에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젖은 잘 나와주

었다. 어쩌면 바보같은 일을 하며 언제 집에 올지도 모를 아기를 기다렸다.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이 좀더 지나서야 병원에서 아기의 퇴원 허락 전화가 왔다. 배냇저고리며 기저귀 등을 챙겨 아기를 데리러 병원에 갔다.

그날 난 아기를 처음으로 안아 볼수 있었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이 살펴보고 만져보다 배가 고픈 듯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하지만 아기는 내젖을 피하기만 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젖을 빨지도 않고 울기만하는 아기 앞에서 난 어쩔줄 몰라했다. 그냥 속이 상해서 나도 한참을 울었다.

조바심내는 내게 남편은 아기에게 새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주자고 했다.

젖병에 짜서 먹이다 한번씩 젖을 물려보며 며칠을 보냈다. 서운함에 안쓰러움에 몇 번을 포기하려 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우유를 찾는 아기에게 잠결에 젖을 물렸는데 아기가 젖을 빨았다. 잠이 확 깼다. 잠을 자던 남편도 일어나 썩썩 고운 숨을 내쉬며 젖을 빠는 아기를 보고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때의 설레임과 기쁨은... 아마도 젖을 먹여본 엄마만이 느껴볼 수 있는 행복감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젖을 먹이는 엄마와 젖을 먹는 아기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 후 아기는 내 젖을 거부하지 않았다. 힘든 싸움을 끝낸 것이다. 젖을 먹일 때면 그때마다 새로웠다.

아기를 품에 안아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아기에게 더 많은 사랑을 느꼈다.

아기와 외출을 해서도 사람들 시선을 피해 젖을 물리곤했다. 아기가 분유를 잘먹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모유를 먹인다는게 내겐 행복이었기에 창피함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주위에선 우리 아기가 제대로 잘 자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지금 수인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좀 작은편이지만 큰 병치레 한번 하지않고 예쁘고 씩씩한 네 살배기 골목대장으로 자라주었다.

지금도 내가슴 위에 손을 얹어야만 잠이 드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다. 아기가 이렇게 잘 자라주는게 고맙기만하다. 그리고 모유를 먹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음주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 태어날 둘째아기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로 모유를 주고 싶다.

수인이처럼 둘째아기도 모유를 먹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 내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먹으며 자라주길 바래본다.

지금 밖에는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있다. 8월이면 남편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가족보다도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둘째의 백일이 되겠지. 젖살이 통통하게 오른 둘째를 안고 가족사진을 찍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이 찾아온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해 주어야지.

